

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본받아 (2016 표어)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innesota

뉴스레터

12 월 호

# kpcm NEWSletter



## 주요 기사 >>>

교역자 칼럼

각 기관 보고

대강절 촛불의 의미

교우소식



교역자 칼럼 >>> Pastor Brenda Alexander

Blessings and peace to you  
for a wonderful and blessed Christmas!

Each year during the weeks of Advent, I ponder again the remarkable story of Mary and Joseph, who were willing to be used by God when it wasn't easy. They stepped into scary, unknown territory while holding on to their faith. Would I have done the same?

Perhaps I relate more closely with Mary as I remember what it was like to be a young teenager. Being engaged and married at age 12 or 13 in that culture, was not only common but acceptable. Mary's family had probably taken her to the synagogue from an early age so that she had learned to know and trust God.

In class, she had learned about a child to be born who would save her people, and establish a new kingdom on earth. Her prayers must have been that she might see that exciting day. But being the age she was, and remembering my own middle school self, she must have wanted to fit in, spend time with friends, and didn't want to be different.

Mary also ha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Joseph that the families were negotiating for their union. If all worked out, this special engagement would only last 1-2 years before the wedding, taking as long as needed to raise the dowry.

As most teenage girls, not only did she dream about her "intended beloved", but I'm sure, she thought about the children that would come after the wedding. All the plans were coming together nicely, Mary thought, until the Angel Gabriel showed up. (Luke 1: 26-56)

"ME??? Become pregnant?? I'm a virgin... Joseph and I are just engaged...the Holy Spirit is involved? Holy child called the Son of God??? Oh my!! Gabriel looked Mary square in the eye and said,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God." Really??? Really!!!

Mary's response each Advent still sends chills down my spine: "Here am I,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with me according to your word." Would I have

(다음 장에 계속)



said the same words with the similar peace and acceptance as Mary? I hope so, but I'm not sure.

During the next nine months, Mary had plenty of time to reflect, question her faith, and grow in the strength of purpose and call. God knew she would need those months to visit her cousin Elizabeth and hear her amazing faith story. Mary's life was not the only one being placed into this complex puzzle. God's plan was so much bigger than her part, so intricate and vast. It always is, my friends!

But... how would she tell her parents she was pregnant? Oh—and how would she tell Joseph? Would he still have her??? And what would her friends at school think about her, and the rabbi and elders at the church? Hard to tell what the town folk would think and do—would they be angry enough to stone her?

And while with Elizabeth for three months, Mary began to grasp the broader meaning of bearing God's Son, the Messiah. He will come to right the wrongs, to fill the hungry with good things, to show mercy on Israel while bringing the powerful down. Oh my--- this is the promise made from the time of Abraham and it's really going to happen--- through me!! "My soul magn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my Savior..."

And then there's Joseph. (Matthew 1: 18-25) Oh, he loves Mary so much and just before they were going to move in together after the engagement (the cultural and accepted thing to do), she told Joseph about the baby. His beloved, pregnant??? Why? How? Who? Oh my!! Not willing to have her put to death, Joseph planned to break the engagement quietly, although he had every right to expose her to the synagogue, share his embarrassment and her betrayal.

But one night an angel comes to Joseph in a dream. "Do not be afraid... Your beloved Mary is to be your wife.

The child in her is from God and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When he's born, call him Jesus – Emmanuel—God with us, just as the prophet spoke hundreds of years before.

And when he woke up, Joseph remembered and trusted his dream! I'm not so sure I could do such an amazing thing, especially when it meant stepping out of the accepted norm and trusting God in this very unconventional way. Do you act according to your dreams? I don't usually. I mean I reflect on them, write some of them down, but to do what seems impossible??

But Joseph, this remarkable and strong man, did as the angel commanded. His faith was rooted in God; so when he was asked to do what was hard, he trusted God to do the impossible. And God blessed Mary and Joseph with a Son on Christmas night as they stayed in the stable under the blinding Star. Shepherds and Magi kings came to worship in those amazing days. Emmanuel had come to earth and will become the blessing that so many of us need and have prayed for. All because God used humble and imperfect, but trusting people.

I ask myself anew each Advent--- Would I have responded as Mary or Joseph did?? Is my faith rooted deep enough to go against the cultural norms, the expectations of family and church, to live in a way that is closer to God than to my natural human nature?? Oh how I pray that it would be so! Each Advent, I thank God for still being active in choosing common, faithful folk in order to do miracles of faith even today. I long to be chosen when the time is right; and then I pray to do the right thing! These stories remind us that God in Jesus Christ is still at work in the world, calling you and I to trust that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Are you open?? Am I willing? With Jesus within us, may we always say – YES!! Here I am, your humble servant. Use me, O God, use me!

-----번역문-----

매년 대강절 기간이 되면 저는 어려운 순간에 기꺼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붙들고 두렵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린 십대소녀였을 때를 생각하면 마리아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 두 살이나 열 세살에 약혼하고 결혼하다는 것은 그 문화에서는 흔할 뿐 아니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는 아마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회당에 데려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한 아이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날 것이며, 이 땅에 새 왕국을 세우리라는 것을 배웠을 테지요. 마리아는 자기도 그 놀라운 날을 목도하기를 원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때는, 제가 중학교 다니던 때를 돌아보자면, 아마 자기 친구들과 비슷하게 사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남다른 존재가 되길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한 가족들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요셉과 약혼관계에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약혼 지속 기간은 지참금을 마련하기 충분한 기간인 결혼 전 1-2 년 정도쯤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십대소녀들처럼 그녀는 "정혼자"에 대해 생각했을 뿐 아니라 결혼 후에 날을 아이들에 대해서도 꿈꾼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계획이 다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기 직전까지는요.

"저요? 임신한다고요? 저는 처녀고요... 요셉하고 저는 이제 막 약혼했어요. ... 성령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룩한 아가요? 아이고!" 그리고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준엄하게 노려보면서 "하나님은 능치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매년 대강절마다 마리아의 반응을 생각하면 저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라면 마리아처럼 평화롭게 말씀을 받아들여 같은 말로 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이어질 아홉달 동안 마리아는 자기 신앙을 반추하고 질문할 때가 많았을 것이며, 소명과 부르심의 힘 가운데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그 동안 자기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엘리사벳의 놀라운 신앙 이야기를 들을 줄 아셨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이 복잡한 퍼즐 속에 자리한 유일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고, 광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부모님께 자기가 임신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요셉이 여전히 마리아와 결혼하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학교 친구나 랍비들이나 장로들은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동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이 화가 나서 마리아를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엘리사벳과 석 달을 함께 지내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가진 것의 더 큰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릇된 자들을 바로잡고 주린 자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고, 힘 있는 자들을 낮추는 대신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러 오신다.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바로 나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리고 요셉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매우 사랑하였기 때문에 약혼 후 함께 살 작정이었는데 (이는 문화적으로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고? 왜? 어떻게? 누구랑? 세상에나! 마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를 회당에 끌고 가서 자기가 당한 굴욕과 배신을 다 알릴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밤 한 천사가 요셉의 꿈에 찾아옵니다. “두려워 말아라. ... 네 사랑하는 마리아는 네 아내다. 그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께서 왔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여라. 이는 선지자들이 수백년 전에 말한 바와 같다.”

그리고 그가 깨었을 때, 요셉은 자기가 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따르기로 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게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서 아주 비관습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일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꿈 끈대로 행동하십니까? 저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 보거나, 글을 써 보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안될 것같은 일을 이루려고 꿈대로 할까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 탁월하고 강인한 남자는 천사가 명한대로 합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뿌리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힘든 일을 하라고 요청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가능한 일을 해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빛나는 별 아래 마구간에 묵었던 그 크리스마스 밤에 아들을 주심으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양치기와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간구했던 복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대강절마다 자문하곤 합니다. 나는 마리아나 요셉과 같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 내 믿음이 문화적 규범과 가족과 교회 기대하는 바를 거스를 만큼 뿌리깊어서 내 인간본성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 아, 제가 얼마나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지요! 대강절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평범하지만 신앙깊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늘날까지 믿음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도 맞는 때에 택항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옳은 일을 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심을 일깨우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도록 초청합니다.

당신은 부르심에 열려 있습니까? 기꺼이 하고자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모두 언제나 “예, 주의 종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예배 및 행사

- 12/14(수) – 목자모임
- 12/17(토) – 당회
- 12/18(주일) – 성탄주일 예행연습, 한글학교 종강, Youth Christmas Party
- 12/24(토) – 토요일 인도자 성경공부 없음
- 12/25(주일) – 성탄주일 연합예배, 세례식, 1 & 2 부 및 주일오전 성경공부 없음
- 1/4(수) – 신년 성찬예배
- 1/15(주일) – 중보기도 훈련 I
- 1/21~22(토~주일) – 디모데 LT
- 1/22(주일) – 중보기도 훈련 II
- 1/29(주일) – 중보기도 훈련 III

### 이 달의 도서 >>> 도서팀

“처음마음”

저자: 이찬수 목사

“드디어, 진정한 보호자를 만났다!”

나를 향한 주님의 보호는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이제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의 시작 버튼을 켜라!

주님과 동행하는 첫 감각이 시작될 때 삶의 능력이 살아난다.

주일 대출 가능 / 대출 기간 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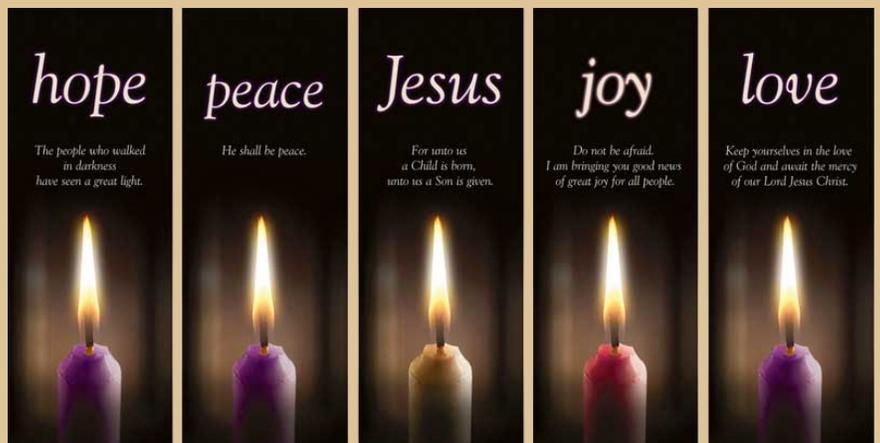
# 각 기관 보고 >>>

<p>관리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회 복도, 화장실, 교실 등에 고장나거나 부서진 <b>light fixture</b> 를 지속적으로 수리 교체(LED light fixture)중입니다.</li> <li>2017년도 관리위원회 소속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재능이나 기술보다도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위해 참여할 의지와 사랑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자원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분은 도서실 옆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li> <li>여선교회의 요청으로 큰 부엌에 식수용 <b>water filter</b> 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용은 여선교회에서 지출하여 설치하고, 앞으로 교회에서 유지/보수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선교회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li> </ul>
<p>선교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PCM의 비전트립 후보지인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접경지역에 대한 선교답사를 11/25~12/2 까지 하였습니다. 또한담당목사님의 선교지 답사 보고가 12/4 주일 예배에서 있었습니다.</li> <li>2017년도 선교위원회 예산 및 활동계획 논의가 11/13(주일)과 12/4(주일) 3부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선교게시판의 게시물 중 미소목장이 후원하는 마다가스카르 김준환/김옥선 선교사님 관련 게시물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li> </ul>
<p>음악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리아 찬양대와 디모데 청년들로 구성된 연합 찬양대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추수감사 연합예배 특별찬양을 하였습니다.</li> <li>성탄주일 특별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조용원집사 <a href="mailto:ywcho55@hotmail.com">ywcho55@hotmail.com</a>)</li> <li>12/4(주일) 글로리아 찬양대 총회가 있었습니다. (대장: 조용원 집사)</li> </ul>
<p>집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21(월) 추수감사절을 맞아 집사회에서는 BCCS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의 명단을 받아 식료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선물권(총 25개)을 구입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겨울용품(장화, 장갑, 모자)도 구입하여 같이 전달하고, BCCS로부터 감사의 메일을 받기도 하였습니다.</li> <li>11/27(주일) 집사회 총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집사회장으로 김경애 집사님을 선출하였습니다.</li> </ul>
<p>제 1 여선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5(토) 김치 봉사를 하였습니다.</li> <li>11/6(주일) 임원회를 했습니다.</li> <li>11/19(토) 65 세이상 다비다 여성회 모임이 있었습니다.</li> <li>12/10(토) 오후 12 시 30 분에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li> </ul>
<p>제 2 여선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hristmas shoebox 74 개와 현금 도네이션 \$1,772 을 Samaritan's purse 에 전달하였습니다.</li> <li>매주 금요모임에 요한복음 읽기를 진행하였고, 12/9(금)에 올 해 금요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li> </ul>
<p>주일학교 유초등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13(주일)에 열린성경암송대회에 총 14 명이 참가하였습니다.</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한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글학교는 12/18(주일) 13 주차 수업을 마지막으로 2016/17년도 가을 학기를 종강하며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봄학기 개강일은 1/22(주일)입니다.</li> </ul>

## 대강절 촛불의 의미 >>> 뉴스레터

- 대강절 첫째 주일—"소망"
- 대강절 둘째 주일—"평화"
- 대강절 셋째 주일—"기쁨"
- 대강절 넷째 주일—"사랑"
- 성탄 주일—"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사진으로 만나는 **KPCM** 이모저모

11 월에 오신 새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 영접위원회  
교우소식 및 로템카페 상품권 퀴즈 >> 뉴스레터 사역팀



## 뉴스레터 12 월호(통권 34 호) >>>

제출해 주신 원고의 내용은 한정된 지면 및 시간적 제약에 따라 원고의 내용과 의도가 왜곡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편집부에서 내용의 침삭 및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담임목사 박성주
위원장	차병권
편집장	목사 박용
디자인/편집	오은아
원고교정	이은실
취재기자	박은영
사진	각 기관
원고수집	각 기관장
인쇄/복사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송	뉴스레터사역팀
발행처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행일	2016년 12월 18일



이름: 박준식, 김만재 (한주, 지현)  
소속: 바울선교회



이름: 김여일, 김태림 (가은, 은호)  
소속: 제 2 남녀선교회



**득남 축하 (11/21)**  
강예준 (David)—강동훈, 김민정 가정 (제 2 남녀선교회)

**득녀 축하 (12/7)**  
김조이 (Zoey)—김광식 목사, 이연주 사모 가정



**이주 (12/16)**  
양승호 집사(방주 목장)—Maryland 주로 이주

## 로템카페 '상품권' 퀴즈!



답안지를 모두 작성하신 후, 로비에 있는 drop box 에 제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우수 답안 작성자 **세 분께** 로템카페 상품권(수령처: 사무실)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예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마가복음 1장 30-31)  
(숨은그림: 여자구두, 십자가, 물고기, 도장, 덧버선)



11 월호 문제 정답:



성경은그림찾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하셨소! 빨리 배에 타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육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13절)  
(숨은그림: 강낭콩, 성경책, 버선, 제비, 공룡)

기사제보 및 원고제출

[kpcmnews@gmail.com](mailto:kpcmnews@gmail.com)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5840 Humboldt Avenue N.

Brooklyn Center, MN 55430

763.560.6699 / 763.560.2222(f)

[www.kpcm.org](http://www.kpcm.org) / [kpcm@kpcm.org](mailto:kpcm@kpcm.org)